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결의안

의안번호	제392호
의결년월일	2000. 10. 20 (제81회)

발의년월일 : 2000. 10. 13

발 의 자 : 이재영 의원 외 17인

1. 주 문

○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지방자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인운하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가. 굴포천 유역은 전체면적의 40%가 해발 10m 이하의 저지대로 우기시 한강 수위가 굴포천보다 높아져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퍼내야 하는 실정이며 홍수시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은 초당 1,030톤이나 현재 가동 중인 펌프의 처리능력은 초당 56톤으로 홍수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굴포천 홍수를 서해로 직접 방류하여야 하는 바, 부천시의회는 굴포천유역의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나. 최근 일부 환경·시민단체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경인운하건설 백지화 서명을 전개함으로 경인운하 건설이 찬반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1987년 굴포천유역의 대홍수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천 헥타의 농경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정부가 하루 빨리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다. 경인운하 건설을 홍수시만 활용되는 방수로로 건설할 경우 갈수기에는 강물이 없어 하천공간이 오염되므로 수로폭을 조금만 넓히고 연장하여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경인운하를 건설하여 홍수피해도 막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경인운하 건설을 촉구한다.

라. 우리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의 거대도시 중간에 위치하여 양도시의 막대한 물류 수송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심의 극심한 교통혼잡과 소음 및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경인운하가 건설될 경우 통과하는 물동량이 경인운하로 흡수되어 교통체증 해소 및 대기오염이 저감되어 수해피해와 환경공해 없는 문화도시로 발전할 것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10월 안에 경인운하 건설을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정부에서 지난 91년 12월부터 굴포천유역의 침수해소를 위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을 비롯한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굴포천 치수사업과 방수로 공사만 시행하고 있어 굴포천유

역의 침수해소를 위하여 하루빨리 경인운하가 건설되어야 하나

- 일부 환경·시민단체에서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 서명 등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에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굴포천유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우선 시행할 정책 과제임을 정부에 건의하여 경인운하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인운하건설사업조기착수촉구결의문(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을 물론 지방자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굴포천유역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인운하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굴포천유역은 전체면적의 40%가 해발 10m 이하의 저지대로 우기시 한강 수위가 굴포천보다 높아져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퍼내야 하는 실정이며 홍수시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수량은 초당 1,030톤이나 현재 가동 중인 펌프의 처리능력은 초당 56톤으로 홍수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굴포천 홍수를 서해로 직접 방류하여야 하는 바, 부천시의회는 굴포천유역의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2. 최근 일부 환경·시민단체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 서명을 전개함으로써 경인운하 건설이 찬반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1987년 굴포천유역의 대홍수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천 헥타의 농경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정부가 하루빨리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인운하 건설을 홍수시만 활용되는 방수로로 건설할 경우 갈수기에는 강물이 없어 하천공간이 오염되므로 수로폭을 조금만 넓히고 연장하여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경인운하를 건설하여 홍수피해도 막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경인운하 건설을 촉구한다.
4. 우리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의 거대도시 중간에 위치하여 양도시의 막대한 물류 수송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심의 극심한 교통혼잡과 소음 및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경인운하가 건설될 경우 통과하는 물동량이 경인운하로 흡수되어 교통체증 해소 및 대기오염이 저감되어 수해피해와 환경공해 없는 문화도시로 발전할 것임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10월 안에 경인운하 건설을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2000. 10. .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